



제24호
2013년 2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전지민, 이선화 / 발행일 2013년 2월 13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고맙습니다. 나눔은 힐링이었습니다.



정 우 식 원장

가볍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힘든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한 해였지요. 태풍과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가 그랬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연말에 밀려든 무기력감, 사람의 일 또한 그랬습니다. 아직도 어디에 선뜻 맘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형편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의례적인 희망 덕담이라도 건네야 할 새해인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질없이 덧없음만 커질까 싶은 때문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청송맞은 냇두리지만 용서하소서. 뜻 맞춤하며 사는 가까운 이들에게나마 한껏 위안 받고 싶습니다. 힘들수록 못 가진 우리끼리 가진 것 나누며 살아야지요. 가진 게 마음뿐이라면 마음이라도 나누어야 하겠지요.

저희 문화원은 추위마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혹독할 것 같은 겨울 초입에, 조금씩 덜어 나누기 위해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해왔지만 어려울수록 힘을 조금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에 훈훈한 밤이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음을 함께하니 기대에 넘치게 1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아졌고, 모두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 전주공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잠초 무성하던 교내 유희지에 밭을 일구어 정성껏 재배한 유기농 배추도 수확해서 김장을 담가 나누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돌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난방비조차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몇 군데에 난방비라도 보탬 수 있다면 무심한 채 잊고 사는 죄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작게 가진 것이나마 나누니까 위안이 되고 희망이 생깁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라 여겼는데 나누면서 내 스스로가 힐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눔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2월

신는순서

- 02 인사말 / 정우식 원장
- 03 제33차 이사회 개최 · 새 이사장 장재성 선생님 선임
이미영 이사, 이사장직 퇴임 · 신임 간사 소개
- 04 기획 특집 / 20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 06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
- 07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마이산 오솔길(12월), 내소사 전나무 숲길-관음전 눈길(1월)
- 08 2013정기총회/초청강연 안내 · 회원, 후원회원 가입 신청

제33차 이사회 개최

이사장, 이사, 감사, 원장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

제33차 이사회가 2013년 2월 6일(수) 오후6시,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열렸다.

2012년 주요 활동보고, 주요 사업평가 보고, 감사보고 등과 함께 ① 2012년도 결산, ②이사, 감사 선임, ③이사장 선임, ④원장 선임, ⑤ 2013년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기가 만료된 박기업, 문채병, 이미영, 정우식, 정은숙, 최병훈, 최순삼 이사 가운데 전문직으로 진출한 최순삼 이사 대신 정용문 선생님이 신임 이사로 선임 되었고, 다른 이사들과 남상팔 감사는 유임되었다.

창립부터 8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우리 문화원을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단체로 탄탄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헌신해온 이미영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며 오래 전부터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달라고 유임을 고사함에 따라 이사회는 새 이사장으로 장재성 선생님(전주서중)을 선임했다.



정우식 원장 연임

2년 임기를 마친 정우식 원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사회의 권고와 결정에 따라 2년 임기를 연장하게 되었다.

새 이사장 장재성 선생님 선임



이번 제33차 이사회에서 새로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장재성 선생님은 우리 문화원의 전신인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시절부터 조직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으며 단체를 꿰뚫어 지켜왔고, 2005년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개편된 뒤에는 부원장과 이사 등을 맡아 한 번도 틈 없이 단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왔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15년여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해온 우리 문화원의 터줏대감이자, 숭선하는 일꾼형 지도자여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미영 이사, 이사장직 퇴임 -



“당신은 우리 문화원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2005년 법인 창립부터 지금까지 8년간 우리 문화원을 이끌면서 전북교육의 대안이자 대표적인 교육단체로 위상을 굳건히 하는 데 헌신해온 이미영 이사장이 조직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아름다운 물러남을 선택했다.

물론, 직무만 바뀔 뿐, 이사직을 비롯해 평소 해 오신 역할은 새로운 활동을 통해 그대로 수행하실 예정입니다.

신임 감사 소개

새 식구가 생겼네요. 엄소희 감사입니다. 많은 사업에 일손이 모자라 상근 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 드디어 2명입니다.



아직 어색하고 서툴지만 즐겁게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20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나눔과 기부 실천

우리 문화원은 그동안에도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잖은 활동을 해왔지만 어려울수록 힘을 조금 더 모아야한다는 생각으로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12년 11월 21일(수) 오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돌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난방비조차 변변히 없이 겨울을 나아 하는 영세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에 난방비라도 보태자는 취지에서 후원금 모금 행사로 기획했다. 뜻을 함께한 전주공고에서는 김장을 담가 어려운 청소년과 나누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잡초 무성하던 교내 유희지에 밭을 일구어 정성껏 유기농 김장 배추를 재배하기도 했다.

좋은 취지에 동참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주어서 많은 액수의 후원금이 모아졌고, 분위기도 따뜻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 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시간과 마음을 보냈고, 비타민어린이집 강혜숙 원장님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대거 동참해주어 자리가 더욱 빛났다.

로비에 정성스레 마련해 둔 김밥, 주먹밥 등의 소박한 요깃거리로 저녁을 대신하며 담화를 나눈 뒤 행사를 시작하였다.

송승용 부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6시~6시30분)은 국민의례에 이어 이미영 이사장님의 대회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의 축사, 문화원 활동 소개 영상 보고, 제8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8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수상자: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지역학부모운동의 새로운 지평 열고, 혁신학교 성공에 기여한 공 인정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은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가 수상 단체로 선정되어 윤성이 회장과 학부모들이 대표로 참석하여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경쟁교육 만능의 우리 교육 풍토에서 새로운 교육철학과 관점을 함께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지역 학부모 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학교 문화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아동·청소년





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문화 활동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청소년 교육과 문화에 희망의 싹을 틔웠으므로' 였다.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되었다.

제2부 문화공연(6시30분~8시)은 청아한 목소리와 깔끔한 진행이 돋보이는 류정아 통일교육실장님 사회를 맡았고, 공연은 내내 늦가을 정취에 젖을 만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준 높은 전주공고 관악부의 관악 합주(지도교사 김규훈), 2012 전북 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노래가사바퀴부르기대회에서 수상한 전주중앙초 어린이의 감쪽하면서도 사뭇 진지한 통일노가바 합창(지도교사 허선자), 문화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기엽 선생님(전주고)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 입담 좋은 시사 풍자로 청중을 사로잡은 백금렬(광주 무등중) 선생님 초청 판소리 공연, 부부교사 회원인 김원진(이일여중)-김혜정(익산부송중) 선생님과 김동재(해성고) 선생님, 예비교사인 장지욱(전북대 영어교육과 4년)님 등으로 구성된 사물놀이가 이어졌다.

전주공고 관악부는 2012년 제37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96년)를 자랑하며,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중단 없이 관악부원을 배출한 전국 최고의 관악부다운 실력을 아낌없이 뽐냈다.



초청 판소리 공연을 위해 멀리서 수업을 마친 후, 달려와 주신 광주 무등중 한문교사 백금렬 선생님은 이일주 명창께 사사했고, 보성소리 축제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명창이다. 광주MBC 국악프로그램 '얼씨구 학당'을 진행하고 있고, 결혼식 때 축의금 대신 국수 값으로 1만원씩을 받아 전액을 북녘동포돕기에 기부하신 통일일꾼이기도 하다. 고수로는 전북도립국악원 고양곤님이 흔쾌히 봉사해 주었다.

» 김장김치 나눔



우리 문화원과 전주공고가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젝트로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2012년 10월부터 전주공고 휴지 텃밭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일일이 별레를 잡아가며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김장용 배추를 12월 6일에서 8일까지 수확하고 다듬고 절여서, 마침내 12월 9일(일)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김장을 담갔다. 김장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우리 문화원이 모금한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이미영 이사장, 정우식 원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학부모 몇 분, 학생 도우미 7~8명까지 해서 모두 30여명의 대식구가 휴일 귀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봉사하니 보람 가득한 훌륭한 행사가 되었다. 특히 눈까지 내리는 날씨에 수도관마저 막혀 배추를 절이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던 전주공고 정영희 선생님의 노고는 잊을 수가 없다.

큼지막한 15리터 들이 김치 통으로 26개 분량이나 되는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가 초·중·고 소외계층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에 나누었다.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 1,000여만 원 전달

회원의 밤 총 모금액은 11,520,000 원이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동참해주었다.

모금액에서 공연 직접 경비 1,486,400 원을 뺀 당일 식사비 등 행사 경비와 행사 준비 제반 비용 400여만 원은 문화원에서 별도 부담) 후원 수익금 총액은 10,033,600 원이나 되었다.

이 후원금으로 김장김치 400kg 이상(15리터 들이 김치통 26개 분량)을 담가 김장 나눔을 실천하였고(총 김장 경비 1,589,400 원), 지역아동센터 등 9개 복지시설에 100여만 원씩 총 8,400,000 원을 기부 후원했다.

9 개 기관 후원 기부 총액 8,400,000 원

● 전주 푸른초장 지역아동센터
800,000 원 ●●



● 김제 꿈의 지역아동센터
1,000,000 원 ●●



● 부안 운호 지역아동센터
1,000,000 원 ●●



● 전주 송천동 시영 지역아동센터
800,000 원 ●●



● 전주 호성원
1,000,000 원 ●●



부안 운호 지역아동센터 활동 모습

● 순창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공부방 1,000,000 원 ●●



시영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종합비타민



● 익산 함열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1,000,000 원 ●●



● 전주 서신 지역아동센터
800,000 원 ●●



● 완주 들녘교회 들녘 공부방
1,000,000 원 ●●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활동 모습

마이산 오솔길

12월 1일(토), 애초엔 진안 성수면 쪽 진안고원2길을 걸어보겠노라고 나선 길이었는데, 날씨가 쌀쌀한데다 새삼스레 낯선 길을 찾아 걷기가 조금 거시기했던(?) 탓인지 가다가 마이산 종긋한 두 귀가 비치니 이내 서로 의기가 투합하여 오랜만에 마이산이나 한 번 둘러보자고 해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원래 우리 걷기 모임이 그랬다. 방향도 목적지도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다. 그저 산과 들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다. 가다가도 마음에 또 바람이 일면 그 바람 따라 바꾸기 일쑤다. 그래서 모임 이름도 '산.들.바람' 이라 했던가?

실로 오랜만에 마이산 탐사까지 걸었다. 탐은 그 자체로 힐링이었다. 탐 쌓은 이의 공덕을 생각하니 절로 숙연해진다. 마이봉 저 끝에서 녹으며 떨어지는 고드름을 받아먹어도 보며 동심으로, 청정무구심으로 돌아간다.

탐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수지를 못 미쳐 전망대로 가는 표지판이 눈에 띄니, 또 속절없이 그 길로 접어든다. 초겨울 오솔길이 소담하고 햇살 적당하다. 늘씬한 굴참나무가 많아 우러르는 하늘 본새마저 더욱 좋다. 바스락거리는 떡갈잎 소리는 가슴 자락을 사각사각 울린다. 늘 꿈꾸던 그 오솔길이다. 길은 제대로 들었다. 내려오는 길은 남쪽으로 난 양지 바른 등성이어서 소나무 숲길이다. 그 또한 푸르고 맑은 셋김이 된다.

내려와 입구 밥집에서 먹는 산채비빔밥도 맛있고, 참숯장작구이 바비큐도 좋았다. 먹매조차 웅골지니 하루 종일 마음은 산들거리고 행복할 수밖에...



내소사 전나무 숲길-관음전 눈길



1월 걷기는 토요일로 잡지 않았다. 1월 2일 수요일이었다. 방학 중인데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그리 잡은 이유는 이미영 이사장 생일이어서였다. 지난 마이산 걷기 모임에서 그리 정했다. 역시 '산.들.바람' 아닌가?

며칠 전 제법 많은 눈에다 새벽까지 눈이 내려 도청 주차장에 모인 뒤에도 한참을 저울질했지만 무작정 나서기로 했다. 정우식, 장재성, 김현봉 등 베스트드라이버들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러길 잘했다. 항상 눈이 많은 부안을 걱정했는데 정작 부안에 들어서니 길마다 눈이 녹아 말끔했다. 안 왔으면 어쩔 뻔 했어?

언제나처럼 눈 쌓인 내소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전나무 숲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절 뒤 산길로 관음전에 이르는 눈길은 무릎까지 잡아당겼다. 서해바다까지 탁트인 관음전은 가히 명당이라 할 만했다.

변산반도를 돌아 나오는 길에 바자락죽과 바지락회, 꽃게장 백반으로 맛있는 점심을 했다. 생일 상차림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2013년

정기총회· 초청강연

우리 문화원은 2012년에도 '청소년통일한마당, 교육행정 감시, 혁신학교 활동, 소외계층 청소년 후원, 학교폭력예방/감정코칭 초·중등교사 직무 연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모두 회원님들이 후원하고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려 합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행운권 추첨과 조출한 뒤편이 자리도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총회 후 초청 강연에는 역작 『봉준이, 온다』의 저자 이광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절망뿐이던 시절,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 치셨을 전봉준 장군의 자취를 더듬으며, 답답하기만 한 우리 삶에서 새 빛을 찾고자 합니다.

일시 : 2013년 2월 15일(금) 오후 4시부터
장소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전주근영여고 정문 앞)

정기총회
(16:00~17:00)

- 2012년 활동/결산 보고
- 2013년 사업계획/예산 보고
- 으뜸회원상, 공로상 시상 등

초청강연
(17:00~18:00)

강사 : 이광재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저자]
주제 : "다시 동학정신으로,
녹두의 힘으로"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름	회 원 (), 후원회원 ()		
직업 / 직장	담당업무(교과)		
직장전화	집 전 화		
손전화			
E-mail 주소			
직장주소			
자택주소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월이체액	회비 1만원 + 후원금()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좌번호	(은행명)		

2 0 년 월 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